칼빈의 "'성경' 신학"

<그의 신약 주석을 중심으로>

김 정 훈 (신 약 학)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종교 개혁자 칼빈의 "'성경' 신학"을 그의 신약 주석서들을 근거로 체계화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가 여기서 "'성경'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성경신학" - 계시 발전[1]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이나믹(dynamic)하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의 -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 용어와 함께 의도하는 것은 칼빈의 성경관 안에 내포된 신학적 체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즉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 속에 담긴 그의 신학적 통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현대적 의미의 "성경신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칼빈의 모든 신학적 체계는 그의 성경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성경' 신학"은 그의 신학체계 전체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성경 이해 가운데 함의된 주요 아이디어들(ideas)을 그의 주석으로부터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칼빈의 "'성경' 신학"과 관련된 신약본문들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2] 이것들에 대한 그의 주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1) 필자는 이 개념을 저급한 것이 고급한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앞의 것보다 더 풍부하고, 확연하고, 넓게 확대되어 나간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필자는 주로 주석 자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과 또한 그 주석이 암시하고 있는 신학적 이슈들(issues)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자연스럽게 각 본문들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유도할 것이다. 필자는 총 20개의 페시지들(passages)을 뽑아 이것들을 분류하여 세 개의 큰 헤딩들(headings),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개념들[3] 속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세 테마들(themes)을 따라 관련된 본문들에 대한 칼빈의 주석과 그 안에 담긴 그의 신학적 통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칼빈의 성경관의 우선적 강조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다. 그는 딤후 3:16-17; 벧전 1:25에 근거하여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 2:6; 요 3:12; 19:7; 벧후 1:20을 근거로 성경이 바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1)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1) 딤후 3:16-17[4] 성경 권위의 원천 및 유용성[5]

2) 이 일을 위해 유익한 힌트(hint)를 준 저서는 조셉 하루투니안(편), 『주제별로 정리한 칼빈 주석의 정수』,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83-134이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신약 본문들 중 하나는 본 논문의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또한 주석의 내용에 관한 한, 한국어 번역은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보이므로, 칼빈의 영문 주석서들을 직접 참고하였다.

3) 이것들 역시 하루투니안, 『주제별로 정리한 칼빈 주석의 정수』, 83-134에 빚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들 밑의 소제목들과 이것들 속에 본문들을 적절히 분류해 넣는 일은 본인의 작업에 의한 것이다.

4)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T. A. Samil(tr.),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51980), 329-31.

5) 이것은 필자가 칼빈의 "'성경' 신학"을 염두에 두고 해당 본문에 대한 그의 주석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하의 모든 표제들도 동일한 작업의 산물이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유용성을 칭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성경"은 칼빈에게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으로[6]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칼빈은 "성경"을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받은 것"라는 말로도 설명한다. 칼빈은 현재의 본문에서 성경이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권위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영감이란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말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임된 말이다. 칼빈은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께서 받아쓰게 한 것"[7]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성령께서 배우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것의 저자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대답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을 했고, 또 자기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입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담대히 외쳤다는 것이다.[8] 그리고 그들을 감동하셨던 성령께서는 현재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시기를 자신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한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만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경외를 성경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유일한 출처는 하나님이시며 거기에 인간적인 기원은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 속에서 성경에 "선하고 행복한 삶의 완전한 법칙"(the perfect rule of a good and happy life)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찬사를 발견한다. 그는,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면 언제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는 말에 주목한다. 그는 "온전

---

6) 17절에 대한 주석을 볼 것.

7) 이 말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기계적 축자 영감설"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받아쓰게 하였다는 말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 등을 사용하여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뜻이다. Cf.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148.

8) Cf. 사무엘 던 편, 『존 칼빈의 신학』 김득룡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15-16.

케" 라는 말이 "완전하게"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인데 어떻게 그는 그것이 사람을 완전케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만일 구약이 완전케 한다면 사도들의 글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칼빈은 본질에 관한 한 사도들의 글은 덧붙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으로서 그들 안에 표현된 것들에 대한 선명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와 같이 복음이 구약에 첨부됨으로써 구약의 가르침이 보다 잘 이해되고 보다 밝게 빛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 벧전 1:25[9] 말씀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및 믿음의 필요성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한 그의 주석 서두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다. 인간은 그 자신 헛된 존재이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아야 한다"고 진술한다. 이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우리는 칼빈의 진술에서 그가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그 선지자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이 사실은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 아무리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에 의해 영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 때문이다(필자의 역).[10]

또한 칼빈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에 대한 주석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가리킨다고 못박는다. 이는 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파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선지자들

---

9)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W. B.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54-55.

10) Ibid., 254.

과 사도들의 입술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입"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이 전파한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11]

칼빈은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을 때, 이는 복음 전파 이외의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는 안 되며, 복음의 영원한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과 생명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2) 바른 해석을 요하는 하나님의 말씀

(1) 마 2:6[12] 신약의 구약 인용에 대한 이해

칼빈은 이 본문이, 미 5:2의 인용으로서, 마태가 당시에 통용되던 해석을 참고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인용한다고 본다. 그는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단어 대 단어로 직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원문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지만 자기의 독자들을 위해 언어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이 언어의 조정이 구약 본문의 원 뜻을 상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는 복음서 기자들이 믿음의 어린아이들과 초보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으므로 젖을 먹이기 위한 의도에서 언어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 칼빈은 신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제시한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약 성경 속의 구약 인용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한다. 이를테면, 복음서 기자들의 구약 인용문은

---

11) 이와 비슷한 생각이 칼빈의 요일 4:1 주석 가운데도 나온다. 그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에서 "영들"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여 자신이 선지자인 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할 때 "영"은 선지자들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그들이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전하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는 구약의 선지자 칭호를 교회의 가르치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에 상반된 개념으로 거짓 선지자, 교만한 사이비 예언자, 교황의 편을 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어리석은 자 등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2)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A. W. Morrison(tr.),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2), 85-86.

독자들의 믿음의 초보적 수준에 맞추어 해석된 것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신자들은 이 해석된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요 3:12[13] 복음의 비하성과 해석자의 겸손

칼빈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또 그와 같은 자들이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진술한다. 칼빈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려 할 때 사변적이고 학구적인 방법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또 고상하고 추상적인 사색을 즐기려 하므로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복음에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 줄만한 화려한 언어가 없다고 단정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무지 "평범하고 낮은 교훈(a common and low doctrine)의 연구에 몰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어색하고 평범한 문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우리의 무지의 수준으로 낮추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이란 영적 진리의 초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교수형식과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부분 천국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땅의 일"인 것처럼 쉽게 말씀되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평이한 교수법 - 평범한 단순성을 가진 - 이 야심적인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화려함과 현란함과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칼빈이 현재의 본문에서 복음의 비하적 성격을 발견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복음이 인간의 무지로 인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쉽게 강론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겸손한 해석자만이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요 19:7[14] 일반원리와 적용 사이

이 본문에서 칼빈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일반원리를 그리스도께 잘못 적용시킴으로써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사실을 발견한다. 칼빈은 유대인들의 비난이 완전히 설득력이 없는

---

13)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T. H. L.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4), 70-71.

14)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T.H.L.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4), 171-72.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내세운 일반 교리는 옳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신적 위엄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할 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는 자가 있을 때 그가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칼빈의 지적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반원리를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Christ's person)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 다양한 호칭들이 포함된 성경의 메시야 예언이 오실 메시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야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따라서 칼빈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원리에서 시작하였으나 잘못된 결론을 끌어냈고, 빗나간 추론을 했다고 단정한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성경해석에 관한 한 올바른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와 함께 그들은 빗나간 추론을 함으로써 그릇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본문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칼빈은 성경의 일반 교리와 그 적용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오류를 막는데 신중을 기함으로써 "참된 원리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본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성경해석, 특히 일반 원리 및 적용 그리고 추론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벧후 1:20[15] 성경해석의 기본원리 –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도 역시 그의 성경관과 성경해석에 대한 그의 견해가 나타난다. 그는, 이 본문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 친히 성경의 해석자가 되신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유익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해석자도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

15)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343-44.

성경의 영감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그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절에 대한 주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생각을 성경에 끌어들여 성경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가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할 때(21절),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충동에 의해 스스로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따라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3. 구약과 신약으로서의 성경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두 부분, 즉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책이다. 양자는 한 카테고리(category) 내에 있으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상호 배타적 기능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상호 불가분적이고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서로의 의미를 밝혀준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고전 10:11을 근거로 교회론적 접근을 시도하며, 벧전 1:10-11; 벧후 1:19을 근거로 계시론적 통찰을 시도하며, 그리고 요 4:23; 9:13-14; 9:18-20을 근거로 예배론적 이해를 시도한다.

1)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고전 10:11)[16] - 모형과 실체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모든 징벌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과 실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당한 심판적 사건들은 우상숭배자들과 간음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들의 심판의 실례들을 "살아있는 그림들"이라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그 심판의 사건들이 우리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라고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구약의 심판 사건이 "모형"이라고 할 때 이는 "당대를 위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일종의 공허한 쇼(empty show)"라는 의미가 아니다. 칼빈의

16)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 W. Fraser(tr.),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3), 210-12.

뜻은 그 구약모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생생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회의 출현을 예고하는 모형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 진정한 교회였다고 주장한다.[17] 그들의 상태는 신약 성도들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교회의 본질적 특징들이 이미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구약교회에 주어진 약속들은 이것들 안에 이미 복음이 포함된 방식으로 복음을 묘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교회론적 진술과 관련하여 칼빈은 성례론에 대해 한 마디 언급한다.

> 그들의 성례는 우리의 성례를 미리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참된 성례로서 그들 당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필자의 역).[18]

칼빈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19]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에 대한 주석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벌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 통념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엄격하셔서 악을 철저히 징벌하시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악을 쉽게 간과하신다고 생각하나 바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 하나님이 덜 엄격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칼빈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인자가 보다 풍성하게 임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일 뿐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부성애의 표현으로서 육신적 형벌을 가하셨으나, 보다 충만한 계시가 드러난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자주 외적 형벌을 가하시지 않으며, 사악한 자들을 다루심에 있어서도 그렇게 빈번히 육신적 형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요약하면, 칼빈의 주장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모형과 실체의 관계로서 양자가 동본질성을 가지면서도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20] 구약교회 역시 진정한 교회로서 신약교회와

---

17)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56-61.

18) Fraser(tr.), *The Firt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211.

19) "말세를 만난 우리"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바울이 "이제 때가 찼으므로 모든 세대의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모든 일이 이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바울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한 마지막 실재가 그리스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이상 세대의 마지막이 이르렀다고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본질상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보다 충만한 계시시대에 속한 실재로서, 모형적 실재로서의 구약교회와 차이가 있다.[21] 범죄한 경우에 구약교회가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신약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형식은 많이 다르다.

2) 구약계시와 신약계시

(1) 벧전 1:10-11[22] 구약계시에 대한 신약계시의 탁월성과 연속성

칼빈은, 베드로가 선지자들이 열심을 다해 구원을 궁구(窮究)한 것을 언급한 것은 구원의 가치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본문 구석구석에서 신약계시의 우월성을 발견한다. 이 사실은 우리의 본문에 대한 그의 해석적 분석 가운데 잘 나타난다. 첫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완전한 계시가 나타날 때를 알기를 갈망했다고 지적한다. 칼빈에게 있어 완전한 계시가 나타날 때란 신약계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왕국의 미래 상태를, 즉 그리스도와 그의 몸 전체(Christ and His whole body)[23]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진술한다. 칼빈은 신약계시가 이 구약예언의 성취의 결정적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예언 중 일부는 드러났고 일부는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칼빈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대해서보다도 우리에게 대해 더 풍성하게 사역을 했다고 진술한다. 그가 볼 때, 그들이 예언하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희미한 이미지로 주셨던 것들의 완전한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신약계시가 구약계시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넷째로, 칼빈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하셨던 성령께서는 신약계시, 특히 복음 안에서도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선지자들의 교훈에 대한 분명한 확증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밝은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신약계시의 탁월성을 지적하는

---

20) Cf.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82-83.

21) 월레스, 『칼빈의 말씀』, 61-71.

22)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238-41.

23)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의 사항들이 신약계시의 탁월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계시와 신약계시 간의 연속성 및 불가분성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항목에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24]

(2) 벧후 1:19[25]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복음 – 연속선상의 실재들

칼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는 절에 대한 해석에서, 사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 진리가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26] 그는 "더 확실한 예언"은 복음을 가리키고 이 중 "예언"이라는 말은 복음이 선지자들의 증거에 기초한다는 뜻을 함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를 주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베드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인도하는 빛으로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빛이 꺼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예언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빛을 비춰 준다고 말함으로써 예언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않는다(필자의 역).[27]

이 진술은 "더 확실한 예언"을 선지자들의 말로 해석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그의 해석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해석의 전이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 예언과 복음을

---

24) 특별히 구약과 신약간의 상이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칼빈의 견해를 위해서는 그의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Vols. 1-3 (Philadelphia: Westerminster, 1960), II, 10을 볼 것(이하 *Institutes*라고 약칭함). Cf.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칼빈주의 시리즈 9,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248-55; 필립 홀스톱,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 (서울: 그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144-48.

25)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339-42.

26) 칼빈은 "우리"는 베드로 자신 및 다른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편지의 구체적 수신자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27)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339-42.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아마도 칼빈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복음의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적 해석을 시도했던 것 같다.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의 말과 복음은 하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선지자들의 계시와 복음 계시를 연속성을 가진 실재들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더 확실한"에 대한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이 비교 개념이 복음과 선지자들의 말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의 아들에 관해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또 이 개념이 18절의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비교하는 말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영원토록 동일하며 그 권위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비적 체험 즉 자신이 거룩한 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과 비교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음성의 권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류에 빠지기 쉽고 객관성을 결여하기 쉬운 인간의 개인적 체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칼빈은 "더 확실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지자들의 말이 '더 확실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즉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들의 말이 항상 무엇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과연 베드로가 "더 확실한"이란 말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런 의미로 사용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상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은 우리의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복음을 연속선상의 실재들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구약예배와 신약예배

(1) 요 4:23[28] 구약예배와 신약예배의 차이성과 일치성; 양자간의 관계

칼빈은 본문이 율법적 예배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본다. 주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 받은 명령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식법들을 폐지하고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이 성전과 제사장 제도 및 모든 의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본문에 대해 역설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는 구약예배와 신약예배 간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에 잘 드러난다.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를 "성령 안에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왜 영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림자와 실체 간의 차이와 같은 성령과 외적 비유(the Spirit and figures) 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9] 이는 구약예배와 신약예배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그는 "기도와 깨끗한 양심과 자기부인"은 오직 마음의 내적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예배를 통해서는 성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은 구약의 예배도 그 자체로는 신령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부합한 영적 예배 외에는 아무 것도 인정하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믿음, 기도, 감사, 마음의 청결, 삶의 순결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구약예배는 그 자체 신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칼빈은 이 사실을 "비록 율법 아래서 여러 가지 부가된 것들이 있어 신령과 진정이 휘장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의 제사로 기뻐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로 확인한다. 구약예배의 본래적 신령성은 모세가 여러 곳에서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로 믿음과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거창한 희생 제물 쇼(show)를 행했던 위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일에서도 잘 드러난다(예; 시 50편; 사 1: 58, 66; 미 6장; 암 5장 등). 이러한 칼빈의 진술들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 간의 본질적 일치성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 준다.

하지만 칼빈은 양자 간의 차이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는 "율법 아래서의 예배가 신령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많은 외적 의식들에 의해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

28)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99-101.

29) *Institutes*, III.20, 30; IV.10, 14.

육적이고 세상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주장한다(cf. 갈 4:9; 히 9:1). 율법의 의식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영적이지만 형식 면에 있어서는 육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의 차이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구약 제사의식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실체의 그림자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를 그림자와 실체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 히 9:13-14[30] 구약예배와 신약예배: 상징과 실체 - 영적 동일성 및 신약예배의 우월성

칼빈은 이 본문이 성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성례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칼빈은, 육체의 정결에 대한 저자의 언급은 의심할 바 없이 상징적 혹은 성례전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즉 "만일 짐승들의 피가 정결의 진정한 상징이 되어 성례전적 방법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더욱 외적 의식뿐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양심에까지 도달할 의식으로써 정결을 선포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다. 칼빈은 "모세가 쓴 글들을 보면 종종 제사가 바로 행해지면 죄가 소멸된다는 뜻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 믿음에 관한 영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례의 영적 의미는 구약예배뿐 아니라 신약 예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는 "영원하신 성령으로"라는 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적 행동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졌다. 영원한 속죄의 희생은 인간의 일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가 동일한 영적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믿으며 또한 후자가 전자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음을 암시한다.

신약예배의 우월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칼빈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목적은 우리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 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구약예배는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예표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1] 이러한 주장들로부터

---

30)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121-22.

31) *Institutes*, II.16.6.

우리는 그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를 상징과 실체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분명 짐승의 피를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실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징-실체" 도식은 신약예배가 구약예배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견해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

(3) 히 9:18-20[32] 구약 예배와 신약예배: 상징과 실체 - 동본질성 및 신약예배의 우월성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저자가 옛 언약도 피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그 언약이 효력이 있고 견고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그는 모세가 장막과 모든 기구들과 율법 책에 피를 뿌림으로써(21절을 볼 것)[33]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언제든지 믿음이 피의 중재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찾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칼빈이 "옛 언약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피"(14절)의 예형을 발견한 사실을 뜻한다. 사실 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하셨고 이 피가 우리로 하나님 곁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주장한다. 또 비슷한 말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 모세가 말한 피 뿌림이란 실체에 대한 상징이다. 여기서 "실체"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는 것을 뜻한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칼빈이 구약예배와 신약예배를 "상징-실체"의 도식에 의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막, 그릇들, 그리고 율법 책에 대한 그의 해설 가운데 암시된 "상징-실체"의 도식에 의해 확증된다. 칼빈은 장막은 "일종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34]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은 "참된 예배"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 책은 "엄숙한 언약"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즉 피가 없이는 장막도 그릇들도

---

32)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ohnston(tr.),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124-27.

33) 칼빈은 모세가 피뿌림으로 언약을 성결케한 것은 언약이 불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부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을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성결의 식을 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34) 칼빈은 성막을 교회의 몸으로 보는 견해보다 자신의 해석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성소를 향했으며 또 그들이 성전에 갔을 때는 보통 그들이 여호와의 면전에 선다고 말한다"고 진술한다.

구원을 위해 무용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율법의 교리도 피로 정결케 되지 않는 한 아무 능력이나 유익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35]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그가 구약예배와 신약예배를 상징과 실체의 도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그는 구약예배와 신약예배를 동본질적인 것으로 보며 동시에 후자를 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상징과 실체의 관계는 그 자체 양자가 동본질적인 것임을 뜻하며 근본적으로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4.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성경

칼빈은 여러 신약 본문들을 토대로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서 파악한다. 그의 요 5:45; 행 7:38에 대한 주석은 율법과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요 5:38, 39; 고후 3:14-17에 대한 주석은 복음과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그리고 마 19:17; 요 1:16-17; 고후 3:6-10에 대한 주석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과 일치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

1) 율법과 복음의 본질

(1) 요 5:45[36] 율법의 본유적 신령성과 윤리적 모순행위에 대한 그것의 거부

칼빈은 올바르게도 이 본문의 의도는 모세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비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거짓된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를 자랑하던 유대 위선자들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들을 두둔해 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반대로 모세가 그들을 고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유대인들의

35) 칼빈은 "이는 … 언약의 피니라"에 대한 주석에서 이는 "언약은 피가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는 언약 없이 속죄를 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한다. 그는 또한 피의 상징은 율법에 설명된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이 성례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성례를 강조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적 진술의 일부이다.

36)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142-43.

사악과 오만에 대한 지적이었다. 칼빈은, 예수께서 모세가 그들을 고소한다고 할 때, 이는 율법이 그것의 고유한 기능, 즉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자신들의 불순종을 지지해 주기라도 하듯 그를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모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당대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황주의자들에게 그들은, 그들이 그릇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거룩한 박사들(the holy doctors of the Church) 보다도 더 적대적인 원수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필자의 역)[37]

고 부연한다. 이러한 칼빈의 해석은 그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그의 해석의 근저에는 율법은 율법의 왜곡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는, 율법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 행위를 율법이 정당화시켜 준다고 믿는 자들의 자기 기만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그 본유적 신령성으로 인해 그 어떤 윤리적 모순행위도 거부한다고 보는 것이다.[38]

(2) 행 7:38[39] 율법의 권위 및 출처, 그리고 그것의 적극적 의미

칼빈은,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의도한 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모세의 교훈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생생한 말씀을 전달한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칼빈은 "생명의 도"에서 "생명의"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충만한"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율법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완전한 규범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도 옳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적극적 율법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은 바울이 율법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할 때, 바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율법에 발생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에 대한 부정적

---

37) Ibid., 143.

38) 칼빈의 율법관은 *Institutes*, II, 7에 잘 나타나 있다. Cf.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복음주의신학총서 2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11-18.

39)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J. W. Fraser(tr.), *The Acts of The Apostles 1-13*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3), 197-99.

진술들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율법 자체는 죄를 만들지 않으나 인간 안에서 죄를 발견해 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율법은 생명을 제공하나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해 율법에서 사망 외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가 율법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는 단지 율법의 부정적 기능은 인간의 부패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율법관은,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나 인간의 부패가 율법으로부터 죄를 고안해냈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2) 율법과 복음의 핵심

(1) 요 5:38[40] 율법의 근본 목적; 율법과 복음의 핵심

칼빈은 이 본문에서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자기의 천국 교훈이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천국 교훈이 있을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씀하신 유일의 목적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율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인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안에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반문한다. 칼빈은 또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공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는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말해 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핵심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암시한다. 그에게 있어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공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들이다. 율법은 예언적 차원에서, 복음은 성취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이다.

---

40)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138.

(2) 요 5:39[41] 율법과 복음의 핵심

칼빈은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모순된 성경관을 책망하신다고 본다. 그는 이 본문에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는 빈번히 이 "성경" 개념을 "모세와 선지자들," 혹은 "율법과 선지자들," 혹은 "율법"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서 사용한다. 그는,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성경을 죽은 문자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성경 자체가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 안에 내포된 생명의 빛을 꺼버린다는 것이다. 칼빈은 "어떻게 율법이 그것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없이 생명을 베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칼빈은 현재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다고 진술한다. 그는 "성경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술들로부터 우리는 칼빈의 성경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본문에 언급된 성경은 구약을 뜻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분이 복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계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체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

(3) 고후 3:14-17[42] 율법의 생명 - 그리스도; 율법의 한계성; 율법과 복음의 불가분성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칼빈은 "율법 자체는 빛으로 가득차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실 때에만 그것의 명징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의의 요체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 아무런 빛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칼빈이 율법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며 율법의 참된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사실을 드러낸다. 칼빈은

41)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138-39.

42)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Samil(tr.),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47-49.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나 스스로는 그 선함을 나타낼 수 없고 오직 복음의 빛 아래서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칼빈은 율법의 본래적 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의 한계성과 복음에의 의존성 및 복음과의 불가분적 관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모세"는 당연히 "율법"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율법에 대한 최상의 독법은 율법 안에서 그것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율법과 복음을 연속선상의 실재들로서 이해하며 율법 안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율법에 대해 언급된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그 자체의 유일의 목표이며 중심인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곡해되고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주는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말씀이, 앞의 구절들에서 언급한, 율법의 가르침은 의문으로서 죽은 것일 뿐 아니라 죽이는 기능도 한다고 한 것과 대조되는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영으로서 묘사할 때 이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는 경우에만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생명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진술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 반생명적 기능을 하는 율법의 본유적 생명성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이란 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진술하고 있다고 본다. 즉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영"이 은유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면 여기서의 "영"은 그가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영혼이 인간의 생기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율법에 생명을 주시고 자신이 생명의 원천임을 보이신다고 주장한다.

3)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과 일치성

(1) 마 19:17[43]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과 일치성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의를 포함한 거룩한 삶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해는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생각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칼빈은 모세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레 18:15)고 한 말에 주목한다. 또 그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을 네 앞에 두었은즉 … "(신 30:19)이라고 한 말에도 주목한다. 칼빈은 이 말들을 근거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이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율법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원칙적인 선언일 뿐이다. 아무튼 그의 뜻은 율법에도 생명이 있으나 율법의 행위로써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결하고 있으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고 진술한다. 그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이해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싶어한다. 칼빈은 "바울이 전자는 행위 안에 두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 안에 둔다"고 말한다.

또한 칼빈은, 인간은 율법을 총족시킴으로 생명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가 의도한 것은 그에게 나온 젊은이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믿음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칼빈은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어떤 율법의 의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언한다(롬 2:13; 3:9-10을 볼 것). 칼빈은 당대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이 본문 역시 교황 추종자들이 의의 획득을 위해 꾸며낸 모든 허구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43)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T. H. L. Parker(tr.),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 2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2), 254-55.

>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선행에 대해 의무 아래 있게 하여 빚으로서 구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기만에 빠졌던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선행을 하려 할 때 율법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특별히 그들 스스로 헌신(devotions)이라고 부르는 가공물에 관심을 쏟는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전통을 훨씬 선호한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교황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전통에 매달리는 것과 달리, 그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필자의 역).[44]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매우 중요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생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칼빈이 율법과 복음에는 공히 생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가 율법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복음(믿음의 의)으로써만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가 율법의 무가치론이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마지막 문장의 뜻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다시 말하여 생명을 획득한 자들은 율법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것을 더욱 충만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이 옳다면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보며, 불연속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연속성의 관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율법과 복음의 기능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보는 것 같다.

(2) 요 1:16-17[45]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과 동일성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과 일치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암시한다. 그는 인칭 대명사 "우리"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시대와 후시대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본문은 그의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풍성한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다. 물론 그는 율법 아래 살았던 모든 경건한 자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맛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

---

44) Ibid., 255.

45)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Parker(t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23-25.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자신의 이러한 견해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예로 들어 볼 때, 아브라함보다도 더 풍성하게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음시대의 성도가 율법시대의 성도보다 더 풍성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분여(分與)하시는 방법과 양식에 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진술들은 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역설적인 이해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는 창세 이래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한 근원 즉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나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시대보다는 복음시대에 더 풍성히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했던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해 얼마나 열등하며 모세가 가져다 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율법 안에서 얻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비시킴으로써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이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어떤 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칼빈은 "진리"에 대해 "어떤 일들 안에 있는 확고부동한 안정성"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은혜"란 "그러한 일들의 영적 완성"을 뜻하는데 그 일들에 관한 문자가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 두 단어가 치환 가능한 개념들로서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즉 율법 진리의 주요부분인 은혜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와 신약의 복음 계시를 동본질적 속성을 가진 실재들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요한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안에는 영적인 복들에 대한 개략적 이미지만 내포되어 있었을 뿐이나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자신의 이러한 견해가, 율법 안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바울의 진술(골 2:17)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상반적 실재들로서가 아니라 동본질적 실재들로서 간주하며 또한 차별적 실재들로서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입장은 또한 양자를 불가분적 실재들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3) 고후 3:6-10[46] 율법과 복음의 차이성

칼빈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바울이 이 대비를 통해 복음과 복음 사역의 주된 영광은 성령의 능력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의문"(문자)은 구약을 의미하고 "영"은 복음을 의미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새 언약의 일꾼과 영의 직분이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영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이 대조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또

> 바울이 말하는 의문이란 마음에 도달하지 않는 외적 전파를 의미하고, 영은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뜻한다. 따라서 "의문"이란 용어는 죽어 있고 비효과적이며 귀에만 들리는 문자적 전파를 의미하고, 영은 입으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산 의미를 주는 영적 가르침을 의미한다(필자의 역)[47]

고 말한다. 이 진술을 의문을 구약으로, 영을 복음으로 해석한 것과 연결시켜 볼 때 구약의 기능은 부정적이고 복음의 기능은 긍정적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이 사실이 그의 계속된 해설에 의해 확인된다.

칼빈은 "구약"과 "율법"을 혼용하면서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한다. 첫째, 본문은 "특수하게 율법에 속했던 것" 즉 율법의 특수한 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율법의 특수한 축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그 때에도 자기의 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모세는 생명의 교리를 약속과 위협을 첨가하여 전함으로 그의 직무를 완수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로부터 우리는 율법의 특수한 속성이란 율법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는 하나 정작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며, 단지 죄를 위협하고 생명을 약속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칼빈은 바울이 율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전파이기 때문이며, 복음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 있고 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

46) 이 텍스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위해 Samil(tr.),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41-46.

47) Ibid., 42.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상반된 면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바울이 이 두 실재를 비교하게 될 때, 율법을 귀 이상을 뚫지 못하는 의문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영적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고 옳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율법과 복음의 속성이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며 사람의 영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또한 율법의 영광보다 복음의 영광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바울의 진술에 주의를 기울인다.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광채를 발하였다. 이 광채는 율법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하다. 율법의 어떤 영광도 복음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과 같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큰 영광을 부여하셨다고 함으로써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위엄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사실에 주목한다. 바울은 율법이 (i)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며, (ii) 먹물로 쓴 의문이며, (iii) 돌에 새겨진 것이며, (iv) 일시적인 것이며, 그리고 (v) 정죄의 직분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복음은 영의 직분 혹은 의의 직분이며 그 효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바울은 특히 복음과 관련하여, 앞의 절들에서 영은 생명을 준다고 하였으며, 육의 심비가 돌비를 대신한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의지가 잉크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상반된 특징들을 살핀다. 그는 본문의 핵심이 양자의 독특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i) 칼빈은 율법의 불완전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지적한다. 율법은 돌에 새겨졌던 것이기에 의문의 가르침이었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율법의 결점은 복음에 의해 교정되어야 했다. 칼빈은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 아래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길 수 없는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ii) 칼빈은 율법의 정죄하며 죽이는 성격과 복음의 의와 생명을 주는 성격을 지적한다. 율법에 요구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은 누구나 저주와 사망을 면할 수 없다.[48] 따라서 "인간이 율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죄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48) 칼빈은 율법이 본유적으로 죽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율법이 인간의 부패성과 만날 때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또 그는 율법의 죽이는 속성이 그것의 본질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속적인 것이며 율법으로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

인간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만한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죄사함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직분은 의와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율법이 선한 삶의 원리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올바른 순종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도리어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한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파멸과 실족의 계기가 된다 할지라도(고후 2:16; 눅 2:34; 벧전 2:8), 죄인들을 중생케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들에게 의와 생명을 공급한다. (iii) 칼빈은 율법의 일시성과 복음의 영원성을 지적한다. 모세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모세의 직분이란 모세 한 사람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전체 즉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포함한다(마 11:13).[49] 모세로부터 세례요한에 이르는 율법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생명을 갖고 있으나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직분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다.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율법의 영광이 소멸된다. 하나님의 영은 옛날 율법 아래서보다 복음 아래서 훨씬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칼빈은 복음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는 율법의 일시성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주장 속에 그것을 언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의 성경관 속에 내포된 그의 신학적 통찰이 무엇인지 관련된 신약 본문들에 대한 그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경은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을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쓰게 하신 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바른 해석을 요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석자의 겸손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해석자는 일반 원리와 적용 사이에 그릇된 추론을 해서는 안된다.

한다(갈 3:10).

49) 이 내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칼빈은 렘 31:31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본문에서 옛 언약이 그 취약성 - 즉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 으로 인해 폐지될 것을 말씀하신다고 지적하면서, 이 율법의 폐지는 그것이 복음과 상반되는 한 옛 언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요한의 때까지의 율법과 선지자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이든, 계시이든, 예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약에 속한 것은 모형(혹은 그림자, 혹은 상징)이요, 신약에 속한 것은 실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모형이라고 해서 공허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실체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상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모형은 실체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체는 모형의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결국 신약의 교회, 계시, 그리고 예배가 구약의 그것들보다 탁월함을 암시한다. 전자는 후자보다 훨씬 더 전진된 것들이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테마와 관련하여, 양자가 공히 생명성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율법과 복음 간에 차이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율법은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생명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성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며 그를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복음 간의 차이성은 결코 양자 간의 상반적 관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서로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